

A detailed statue of Saint Francis of Assisi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He is shown from the waist up, wearing his characteristic simple brown monk's habit. He holds a wooden crucifix in his right hand, which is extended towards the center of the frame. In his left arm, he cradles a small white dove. His gaze is directed upwards and to the right, towards the crucifix. The background is a warm, solid yellow.

The Queen of Peace

# 평화의 모후

2011, April / 제60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연이 깨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꽃들과 열매를 가져다 줄 새순이 나무들  
에서 돌아나고 있다.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 역시 회개에 힘쓰고, 회개  
했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희의 모범  
은 다른 이들의 회개를 위한 표징과 자극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내 아들 예수님 앞에서 너희의 회개를 위해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1년 2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 평화를 구하는 기도

–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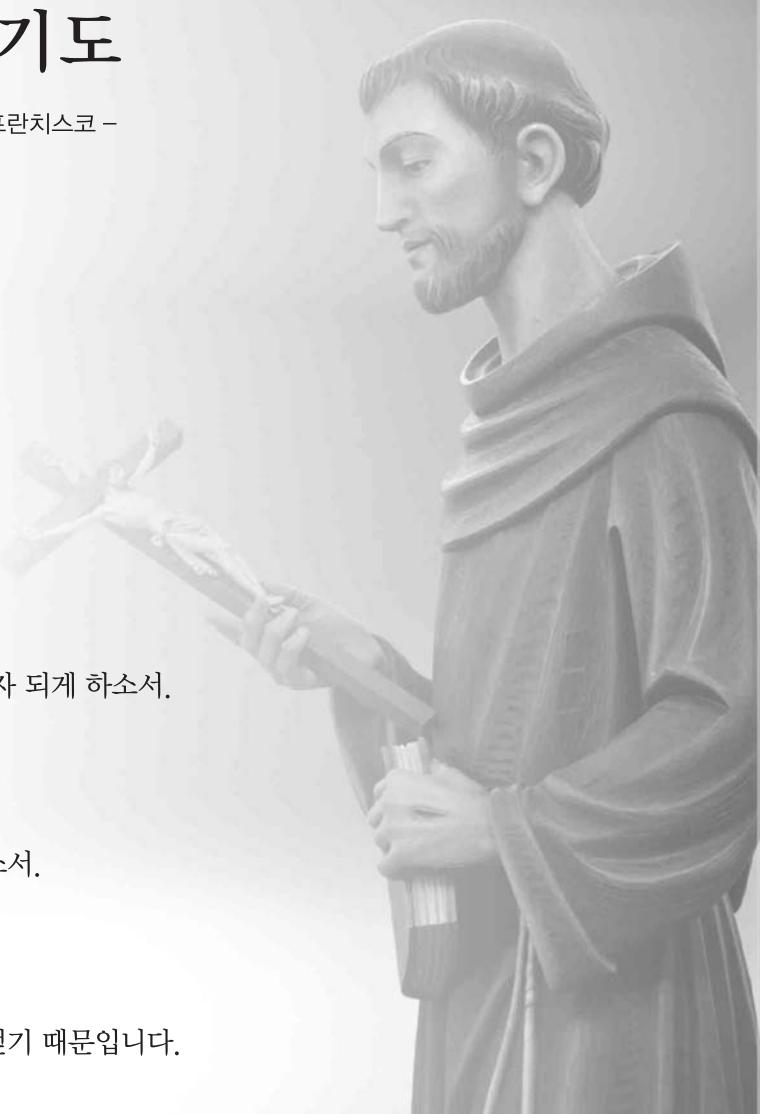
주님,

저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 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어머니 마을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님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 제 기도에 맡겨진 모든 이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 성모님, 암 수술이 잘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가정의 평화와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성모님,OO의 나약한 의지, 두려움, 분노를 치유해주세요.
- 지난 한 해의 모든 은혜를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의 전쟁방지와 평화 통일과 북한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 어머니의 대장암 수술이 잘 되도록 성모님께 기도해 주세요.
- 늘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고 유혹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세요.
- 부모님의 건강과 평화, 선종할 수 있는 임종의 축복을 청합니다.
- 정신 병원에 있는 OO가 병자성사를 받고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 성모님, 제 아들이 세례성사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 저희가족들의 살아 갈 수 있는 길과 필요한 은혜주시길 기도합니다
- 가정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 아들의 믿음과 세속 오류로부터 지켜 주시길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성모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 가정 이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소서.
- 저희 부부와 가족들이 화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세요.
- 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학교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남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예수님이 OO가 냉담을 풀고 하루 빨리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000가 반장을 성실히 하도록, 데레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아들과 남편이 깊은 정과 회개를 통하여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수술 후 깨어나지 않고 있는 OO에게 예수님께서 "탈리타쿰" 한 말씀만 하소서.
- 성모님, 저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총주소서.
- OO의 선종을 잘 준비시킬 수 있도록, 간병과 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위와 장의 Chronic Disease로 토하고 피가 섞은 설사를 하는 조카를 위하여…
- 성모님, 사위가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예수님, 힘든 동생을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님, 억울한 소송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저에게 믿음과 인내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 새 집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냉담증에 있는 저희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회개의 은총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세요.
- 딸에게 영육간의 치유와 건강을 주시어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 
- 3월 매주 고리예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의 사제서품 50주년 금경축을 축하드립니다.



박창득 몬시뇰 평화의 모후 지도신부 / 발행인

미동북부 한인 가톨릭계 역사는 바로 박창득 몬시뇰의 역사이고, 박몬시뇰은 미동북부 한인 가톨릭계의 역사 자체이다.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의 40년간의 미국 내 사목 활동을 알고 있는 미주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말하는 표현은 다양하다. 미국 한인 가톨릭계의 아브라함, 미주한인 가톨릭계의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미주 한인 가톨릭의 선교와 공동체의 확장과 신심운동의 반석이라는 의미의 바오로, 장소를 불문하고 헌신한다는 의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도 표현한다. 박몬시뇰은 지난 40여년의 사목 활동이 담긴 미주한인가톨릭 역사와 기록을 편찬하고 있다.

박창득 몬시뇰의 맏아들 신부인 메이플 우드 성당 주임 조민현 신부는 박몬시뇰의 일생에 대해 1)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가능성을 믿음으로 2) 그 희망에 따른 시도직을 실천하고 살아 왔으며 3) 주님의 은총으로 그 열매를 맺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왁교구내 모든 한인성당들과 본당 주임 신부들은 2011년 3월 25일 박창득 몬시뇰의 사제서품 50주년인 금경축을 맞아 미사 봉헌과 감사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박창득 몬시뇰은 2004년부터 선교회의 지도신부와 발행인으로서 '메주고리예'(현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통하여 전 미주 및 유럽 12 지역의 해외 신자들에게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와 신심을 전하고 있다.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은 1935년 충북 청주에서 출생, 1961년 3월 19일 가톨릭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3월 20일 대전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15세 때 서산중학교 3학년생으로 6·25전쟁을 맞았는데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같은 학교 좌파학생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동네 전체가 인민군들의 수중에 넘아가고 곳곳에서 인민재판이 벌어져 공개적으로 총살이 집행되곤 하던 때이었다. 어느 날 인민군과 가까운 한 지인이 박창득 학생이 예수쟁이라는 죄목으로 처형 대상에 올라 있는 서류를 보고 귀띔해주어 그 순간 동네를 탈출하여 1시간 거리에 있는 청주시내 누님댁으로 피신했다. 누님댁은 집이 커서 인민군들이 숙소로 쓰고 있었기에 오히려 호랑이굴이 더 안전할 것이라 생각에서였다. 누님댁 골방에 숨어 피신할 때 자신도 모르게 들고 온 준주성범을 읽고 또 읽으며 요한복음 8장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속에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일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전쟁 전 '너는 신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죽지 않고 살아 남는다면 자신의 생명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결심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하느님과 약속한대로 신학교에 들어갔다.

한국에서 군종신부를 거친 후 1966년 프랑스 파리와 이태리 로마의 안젤리쿰 대학에서 종교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사회학 공부를 하기 위해 도미, 펜실베니아 주 포코노에 있는 St. Mary 성당과 뉴저지 저지시티의 Our Lady of Victories 성당의 보좌신부로 사목하면서 공부를 했다. 73년 뉴욕 퀸즈에 한인 성당을 세운 정육진 신부와 함께 박창득 신부는 미주 한인 가톨릭의 기반이 되었다. 그 당시 이민 초기의 교회는 신앙공동체와 가톨릭신자들의 이민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생활공동체로서 정육진신부와 박창득 신부는 이민 신자들의 공항 학교에서부터 아파트입주와 이사 돋기, 학교입학, 직업알선, 병원안내, 때에 따라서는 아파트 수리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면서 초기 이민자들의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

### 성소 꽃을 피워 탄생한 10명의 아들 신부와 2명의 딸 수녀를 둔 아버지

박창득 몬시뇰을 떠오릴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10여명의 성직자와 수도자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40여년의 한인사목과 12년간의 사제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미래의 한인 교회는 미국 현지에서 서품을 받은 한인 1.5세와 2세들이 사목을 담당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뉴저지 성당을 중심으로 안드레아회를 조직, 성소를 위해 기도해 왔다. 1990년부터 성소후원회를 활성화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6명의 사제와 2명의 수녀, 1명의 종신부제, 2명의 신학교 재학생을 배출하였다. 이러한 풍성한 성소에 대해 고 김수환 추기경과 뉴왁교구장이던 맥카릭 추기경은 한국 순교자들의 피가 한인신자들의 기도에 힘입어 미국

에서 열매 맺은 것이라는 치하를 받았다. 현재는 아들 신부들과 함께 양업회를 조직, 사제성소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뉴저지 오랜지 시는 87년 3월29일을 박어거스틴 신부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 50년 사제직의 열매

▲1998년 이승윤 신부 ▲1998년 이윤나 수녀 ▲1999년 조민현 신부 ▲2001년 박홍식 신부 ▲2003년 김정수 신부 ▲2003년 김성규 종신부제 ▲2006년 조후연 신부 ▲2006년 이경 신부 ▲2008년 박젬마 수녀 ▲2010년 5월 27일 이충우 부제 [2011년 사제서품 예정] ▲2010년 10월 5일조홍래 부제[2011년 사제 서품 예정] ▲홍성계 학사 [뉴왁교구 시튼홀 신학교 재학 중]

▲가톨릭 성령쇄신운동 ▲ME 부부주말피정 ▲가톨릭 다이제스트 ▲한영매일미사 ▲평화신문 ▲한국 및 북미 주 바뇌 국제 기도회 지도신부 ▲평화의 모후 선교회지도 신부 ▲뉴져지 가톨릭센터설립 ▲청소년들의 성소 모체인 안티옥 학생 피정 ▲서울 국제선교회 설립 ▲뉴왁대교구 한인사목 대표 ▲북한과 중국에 30여 차례 선교활동 ▲한반도 분단이후 최초로 장총성당에서 남북 신자 합동 미사 봉헌 ▲북한 동포들을 위한 국수공장과 라면식당 개설 ▲북미주 한인사제협의회 창립 ▲미국 주교회의 이주 및 관공사목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의 북미주 교포사목부 총대리 M

##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및 성시간

일시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묵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02-636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6 / e-mail : qpmmkr@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 목자의 소리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제2장 그리스도의 신비 – 성모님의 신비

#### 목주기도는 '복음의 요약'

18.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유일한 길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기"(마태 11,27) 때문입니다.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 너는 복이 있다."(마태 16,17)하고 말씀하시며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가 분명하게 깨뚫어보게 된 근거를 알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높은 곳에서 오는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주의 깊게 귀 기울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침묵과 기도의 체험만이 그 신비에 대한 진실하고 성실하고 일관된 지식이 무르익고 발전할 수 있는 적합한 배경이 됩니다." 목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관상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기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목주기도는 강생의 신비와 인간 구원에 중심을 둔 복음적인 기도로서 명백히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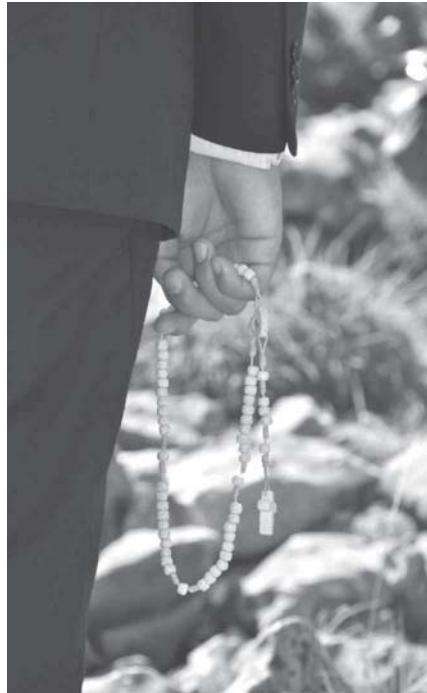
다. 목주기도의 고유한 특징인 성모송의 연속적인 반복은 그리스도께 대한 끊임없는 찬미입니다. 천사의 인사와 '태종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루가 1,42)고 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의 인사는 궁극적으로 모두 그리스도께 드리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성모송의 반복은 신비에 대한 관상을 엮어 주는 씨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성모송에서 가리키는 그리스도께서는 차례로 선포되는 신비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들로 또 동정녀의 아들로 제시되는 바로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보완 : 19. 그리스도 생애의 수많은 신비들 가운데 일부만이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아 폭넓은 신심 관행으로 바치는 목주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은 지금까지 바쳐 온 목주기도의 형식이며, 이는 시편의 충수에 상응하는 150이라는 숫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신비들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결정적인 계시이신 그리스도의 중요한 측면들을 관상합니다.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 선언된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올 것을 알리시고 당신의 활동을 통하여 이를 증언하시며 그에 따르는 요구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빛이다."(요한 9,5)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생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신비는 바로 빛의 신비입니다. 따라서 묵주기도가 더욱 완전한 '복음의 요약'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강생과 드러나지 않은 생활(환희의 신비)을 묵상한 다음, 그리스도의 수난의 고통과(고통의 신비) 부활의 승리(영광의 신비)를 묵상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공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한 몇몇 순간들(빛의 신비)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묵주기도의 전통적인 형태의 본질적 측면을 훼손하지 않고 이러한 새로운 신비를 추가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환희와 빛과 고통과 영광의 심연인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에 이르는 참된 길인 묵주기도에 새로운 열성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입니다.

**환희의 신비** : 20. '환희의 신비'인 첫 꿰미는 참으로 강생 사건에서 빛나는 기쁨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주님의 탄생 예고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자렛의 동정녀께 드리는 인사인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라는 권고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구원 역사 전체,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역사 전체가 이 소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에페 1,10), 온 세상은 어떤 면에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성모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당신 아드님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신 성모님의 순종 안에 온 인류가 담겨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과 만나시는 장면도 환희입니다. 성모님의 목소리와 그분의 태중에 계시던 그리스도의 존재는 요한을 "기뻐 뛰놀게" (루카 1,44) 하였습니다. 하느님이신 구세주 아기의 탄생을 천사들이 노래하며 목자들에게 "큰 기쁨"(루카 2,10)이 될 소식을 알리는 베들레헴의 광경도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두 신비는, 이러한 환희의 분위기를 간직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비극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바치심은 아드님을 봉헌하는 기쁨과 나이 든 시



므온의 환희를 표현하는 한편,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시고 성모님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는 예언을(루카 2,34-35) 담고 있습니다. 열두 살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찾은 사건도 기쁨과 비극이 뒤섞여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학자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당신의 신적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성부의 일에 완전히 봉헌되신 성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계시는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도 하느님 나라의 절대적인 요구와 부딪히게 되는 복음의 근본적인 특성을 선포합니다. 성모님과 요셉은 두렵고 걱정이 되어 그분의 말

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루카 2,50).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지닌 궁극적인 이유와 그 심오한 의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강생의 신비가 지닌 구체적인 사실성을 바라보며, 구원을 위한 고통의 신비를 어렵잖이 내다보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을 깨닫도록 이끄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가르침이 바로 그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빛의 신비** : 21. 우리의 관상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나자렛 생활에서 공생활로 옮겨가면서, 특별히 '빛의 신비'라고 부를 수 있는 신비들로 우리를 이끕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는 빛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요한 8,12)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공생활 동안에 특별히 드러납니다. 저는 이 기간의 그리스도 생애에서 다섯 가지 중요한 순간들, 곧 "빛의 신비"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1.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심, 2.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당신을 드러내심,

##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3. 회개의 촉구와 결부된 하느님 나라의 선포, 4. 예수님의 변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5. 파스카 신비의 성사적 표명인 성체성사의 제정입니다. 이 신비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느님 나라의 계시입니다. 요르단 강에서 받으신 세례는 무엇보다도 빛의 신비입니다. 여기에서, 죄를 모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 있는" 분이 되신(2고린 5,21) 그리스도께서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분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선언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 오는 한편(마태 3,17과 다른 복음서들의 병행 구절), 성령께서 그분 위에 내려오시어 그분께 영원한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가나에서 행하신 첫 기적이 빛의 신비입니다(요한 2,1-12). 첫 신자인 성모님의 전구로, 그리스도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신앙으로 열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선포 자체가 빛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알리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마르 1,15) 겸손한 믿음으로 당신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마르 2,3-13; 루카 7,47-48). 이렇게 시작하신 자비 활동을 그리스도께서는 특히 당신 교회에 맡기신 고해성사를 통하여(요한 20,22-23)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십니다. 가장 뛰어난 빛의 신비는, 전통적으로 다볼 산에서 있었다고 여겨지는 변모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고, 하느님께서는 놀란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어라."(루카 9,35와 다른 복음서들의 병행 구절) 하시며 성령으로 변모된 삶과 부활의 기쁨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수난의 고통을 겪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빛의 신비는 성체성사의 제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뺨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음식으로 내어 주시며,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제 곧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실 "극진한" (요한 13,1) 인간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이러한 신비들에서, 가나의 기적을 제외하면, 성모님의 모습은 그늘에 가려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성모님께서 이따금 함께 하셨음을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마르 3,31-5; 요한 2,12), 성체성사가 제정될 때에 다락방에 함께 계셨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에서 성모님께서 해내신 역할은 어느 모로 그리스도의 여성 내내 함께 하였습니다. 요르단 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세례자 요한



이 되풀이하였던 그 계시가 가나에서 성모님의 입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하신 이 계시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당부하시는 어머니의 위대한 권고가 되었습니다. 이 권고는 공생활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들을 이끌어 내며, 마치 성모님을 바탕에 그린 것처럼 '빛의 신비' 전체의 밑그림을 이룹니다.

**고통의 신비 :** 22.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고통의 신비에 큰 중요성을 둡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심은, 특히 사순 시기의 십자가의 길 기도는 수난의 각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는 수난이 사랑의 계시의 절정이며 우리 구원의 원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수난에서 몇몇 순간들을 선택하여, 신자들에게 이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체험하도록 초대합니다. 묵상의 순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 앞에서 깊은 번민의 순간을 겪으시는 계제마니에서 시작됩니다. 연약한 육신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유혹에 직면하시지만 인간의 모든 죄에 맞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루카 22,42와 다른 복음서들의 병행 구절).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 조상들이 보여 주었던 '거역'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에 충실히으로써 치르는 대가는 뒤이은 신비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매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극도의 고통 속으로 내던져지십니다. "보라, 이 사람을!" 이러한 비참한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의미도 드러납니다. "보라, 이 사람을!" 인간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필립 2,8)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신 하느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 "주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인간의 의미와 기원과 완성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의 신비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생생하게 체험하고,십자가 아래 성모님 곁에 서서, 성모님과 함께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생명을 주는 그 모든 힘을 깨닫도록 이끌어 줍니다.

영광의 신비 : 23. "교회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의 모습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묵주기도는 언제나 신앙의 이러한 인식을 표명해 왔으며, 신자들에게 수난의 어둠을 넘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이유를 다시 찾고(1고린 15,14)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뵈었던 사람들, 곧 사도들, 막달라 여자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신 당신 아드님의 새 생명을 그분만큼이나 강렬하게 체험하셨을 성모님의 기쁨도 다시 체험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중에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신 성모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며, 유일한 특권으로, 죽은 이들의 부활 때에 모든 의인

을 위하여 마련된 운명을 앞서 누리셨을 것입니다. 영광의 신비 마지막 단에서 보듯이, 마침내 천사들과 성인들의 모후로서 빛나는 영광의 관을 쓰신 성모님께서는 교회가 종말에 누리게 될 지위를 미리 보여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묵주기도는, 아드님과 어머니의 영광이 나란히 펼쳐지는 한가운데에, 세 번째 영광의 신비인 성령 강림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이 신비는 교회의 모습을 성모님과 함께 모여 있는 가족, 성령을 가득히 받아 활기가 넘치고 복음화 자세를 갖춘 가족으로 제시합니다. 이 신비의 관상은 반드시, 다른 영광의 신비들에 대한 관상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교회 한가운데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생명의 위대한 "표상"이 되는 그러한 삶을 언제나 더욱 생생하게 의식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신비는 신자들이 역사 안에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으로서 지향하는 궁극 목적에 대한 희망을 더욱 키워 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한 희망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쁜 소식"을 용감하게 중언하도록 재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

[www.cbck.or.kr의 교황청 문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간절한 기도 지향을 성모님께 전해 드립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중재 기도의 사명을 받은 발현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발현때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을 위하여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보내 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e-mail: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qpmmkr@gmail.com





## 성모님의 메시지 묵상

"이 시기가 너희를 위한  
기도의 때가 되기를 바란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나는 너희를 부른다. 특별히, 이 은총의 시기에 나는 너희를 '포기'에로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여라. 너희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만이, 너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기도와 '포기'를 통하여 너희는 믿음과 교회와 너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선물에 더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축복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1998년 2월 25일 메시지-

묵상 : 이 묵상을 읽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살아 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재의 수요일에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거룩한 은총의 시기를 쇄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월 달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향상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이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며, 미사가 습관적인 것이 되서는 안되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느

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미사의 은총을 전하면 미사가 그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가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됨으로서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미사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일치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용서와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비츠카, 야콥, 미리야나, 이반카는 메주고리예에 있으며 마리야는 이태리에, 이반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반은 2월말에,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은 사순시기를 메주고리예에서 보낼 것이 분명합니다. 미리야나는 매달 2일날 성모님과 함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메주고리예에 계시는 오스트레일리아 Canberra에서 오신 Auxillary 주교님은 이번이 두 번째 순례입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당신의 신분을 숨기고 오셨지만 이번에는 그분의 가족들과 순례자들을 동반하고 오셨습니다. 주교님은 재의 수요일 저녁 미사에서 우리에게 당신이 체험했던 좋은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며 감사를 표현

하시고 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주교님들이 굳은 믿음으로 이곳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 오늘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 말씀은 1월 메시지에서도 성모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즉 성모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느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신 것을 우리는 사순시기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임태에서 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늘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 크라자밧 산에는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묵상이 될 수 있는 14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십자가의 길'에서는 성모님이 3처와 4처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조각가 Carmello Puzzolo의 '십자가의 길'에서는 예수님께서 젯세마니 동산에서 고통 당하시는 동안만 제외하고 모든 곳에 성모님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예술가는 예수님의 젯세마니 동산에 계실 때를 제외한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어머니로서의 성모님을 메주고리예에서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Carmello는 성모님의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머리로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성모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성모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와 사순시기에 성모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 너희 모두가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나는 너희를 부른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며 신앙생활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성모님께 가까이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분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성모님을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찾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 지향들에 중심을 두게 되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더욱 가까이 오너라' 또는 '더 가까이 있어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모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더 큰 평화와 기쁨과 믿음,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메시지입니다.



### 특별히, 이 은총의 시기에 나는 너희를 '포기'에로 부른다.

많은 경우에 '포기'라는 말의 뜻이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물건들고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 언덕너머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 하던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먼저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바닥에 던지고 주변을 깨끗하게 치울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반가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달려 갈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포기는 하느님과 성모님과의 일치를 방해하는 것들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며 그분들과 가까이 머물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고통 당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 어린 자녀들아, 너희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여라.

묵상은 어떤 일의 중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희생과 포기는 그러한 상황에서 분열을 피하고 일치를 향해 자신을 개방함으로서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나는 이 사순 시기에 '포기'라는 말이 주는 평화와 자유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희생'과 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천 할 때 우리 자신이 새로 태어나는 기쁨안에서 예수님의 수난과 죽으심의 의미와 은총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때만이, 너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순절의 '십자가의 길'과 '고통의 신비'에 대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 각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통 당하신 것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는 정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 안에서, 십자가와 돌아가심 안에서 우리 각자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고통 당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길로써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누군가는 '오직 확실한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조차도 어려움과 고통에 처하면 자신 스스로를 내어준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고통 당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도 받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 할 때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은 치유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의 기도와 '포기'를 통하여 너희는 믿음,**

포기와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그분의 아끄심에 온전히 의탁 할 수 있기를 청하며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맡겨 드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며 특별히 고통을 당할 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다음의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너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선물에 더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함과 실수가 용납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되기 때문에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충실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 교회를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자생활을 하던 사람들 조차도 더 이상 교황님과 주교들, 사제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메시지는 이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성공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축복한다.**

성모님의 이 말씀에는 한 없는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6년 8개월간 수 많은 순례자들이 하느님께 그들 자신을 열고 회개하여 변화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살펴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이 사순시기 동안 어머니로서 주시는 성모님의 축복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따라야합니다. 또한 기도와 단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과 사랑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천과 더불어 교회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함께하는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총의 시기에 우리와 가족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총이 풍성한 사순시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서로 상처 받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화해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하느님 아버지, 저희에게 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수난과 십자가, 죽으심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당신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순 시기에 저희가 예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 아버지, 당신과 성모님께로, 교회에로,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길에서 저희를 괴롭히고 분열을 만드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의 '작은 희생'과 '포기'가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성모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하여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당신의 지혜와 사랑의 영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오,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특히 믿음과 희망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느님, 당신 앞에 모든 교회와 당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 교황님

과 모든 주교들과 사제들, 그리고 단체와 봉사자들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떠나서 가르침을 거부하고 비난하며 싸웠던 모든 사람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주소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서로 상처 받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화해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영으로써 그들의 화해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아픈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또한 성모님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저희에게 베풀어주소서.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기억해주시고 치유해주소서. 특별히 영원한 삶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기억해주시고 보살펴주소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굳게 믿사오니 저희 모두가 예수님처럼 고통의 길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영원한 평화를 주소서. 아멘. M

### 믿지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발현 목격증인 미리야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내 주변으로 모여들며, 길을 찾고 있다.  
너희는 진리를 찾고 또 찾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기도를 바쳐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있다. 입술로는 수많은 말을 되뇌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너희는 어둠 속을 헤매면서,  
실제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하느님의 모습을 그리기까지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마음 깊은 곳, 너희의 고통, 너희의 기쁨에서, 그리고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하는 바로 그곳에서,  
참된 기도가 터져 나온다. 너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을 통해서 하느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너희는  
기도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바를 이를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사명을 완수할 것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이  
될 것이다 고맙다."

2011년 2월 2일 성모님의 메시지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수난의 시간

-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

루이사 뼈까레따 씀  
심재기 / 이인복 / 조미현 옮김

저의 사랑 예수님, 주님께서는 이미 옷을 벗기우셨습니다… 원수들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땅바닥에 쓰러져 누우셨습니다. 저의 전부이신, 선하신 예수님, 저의 온 심장은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 전체에서 냇물처럼 흐르는 피를 보고, 또 주님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가 되신 것을 보고 슬픔으로 찢어질 듯 아픕니다.… 주님의 옷을 벗기면서 그들은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머리에서 가시관을 벗겨내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주님의 머리에 씌우니 더 큰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특히 자만심에 기인한 죄의 사악함과 완고함을 위해 보속하십니다.… 온유하신 저의 예수님, 저의 고귀한 생명이시여, 주님은 수난을 당하시는 이 시간, 주님의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성모님도 심장이 찢겨지는 것을 느끼시며 주님께서 당하시는 것만큼 무수한 죽음을 겪고 계십니다. 오, 예수님, 여기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믿음 깊은 요한입니다.… 저의 사랑이시여, 저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 하나하나를 경배하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어 아무도 악한 생각으로 주님께 죄 짓지 않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십자가여! 나의 고귀한 침상이여! 너는 이 세상에서 내게 고통이었으나, 이제는 나의 휴식처가 되는구나. 아, 십자가여, 너의 팔에 나를 받아들여라. 나는 몹시

기다리고 있다. 성스러운 십자가여, 네 안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이룬다. 서둘러라, 십자가여!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나를 소모시키는 열렬한 소망이 이루어지도 록 하라. 아, 십자가여, 너는 생명의 인호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나는 지옥의 문을 닫고,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나라 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네 위에 나 자신이 묶이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아, 십자가여! 너는 내게 고통이지만 동시에 나의 승리, 완벽한 승리이기도하다. 네 안에서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유산과 승리와 왕관을 줄 것이다."

저의 사랑이시여! 저의 온유하신 사랑이시여! 주님의 고통을 비통해 하시는 성모님, 늘 주님을 시중들던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사랑하시는 요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혼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주님과 함께 처형 받는 것이 더 견디기 쉽다고 말 할 것입니다. 아! 이때에 슬픔에 잠긴 나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가야! 너는 나의 사랑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구나. 나의 뜻은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도록 해라. 나는 너를 내 생명의 생명이 되게 하겠다. 나는 너를 내 마음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간직하겠다."

저의 소중한 예수님, 주님께서 망치질 당하시는 숫자만큼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을 구해주시도록 간청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흘리시는 핏방울 숫자만큼 주님의 그 지극히 고귀한 피로 영혼들을 씻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고통의 순간마다, 특히 주님께서 못질 당하실 때 주님 팔의 신경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실 적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늘나라 문을 여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단자들과 무신론자들에 게도 믿음의 빛을 내리소서.

저의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못질을 끝내자 그들은 주님의 왼손을 무자비하게 낚아채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구멍에 손 위치를 맞추기 위해 윈팔을 세게 잡아당기자 주님의 팔과 어깨 관절은 완전히 뒤틀려 빠져버렸습니다. 망치가 내리쳐지고 못이 주님 손을 뚫어 주님의 그 고통으로 그 순간에 많은 영혼들이 연옥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님의 흘리신 피로 그 영혼들을 태우는 불꽃을 꺼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전부이신 주님, 그들이 주님의 왼손을 대못으로 끌뚫을 때, 주님께서 겪으시는 끔찍한 고통을 통해 지옥 문이 닫혀 있어 어떤 영혼도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불행하게도 저희 죄로 인해 내리려고 하셨던 하늘나라 정의의 천동번개를 멈춰 주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축복 받은 주님의 왼손의 대못이 하늘나라 정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이 땅 위에 내려지려는 벌을 막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자비의 보물창고가 열리는 은덕이 되게 하소서.

저의 사랑이시여! 주님께서 흘리신 자비로운 피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지극히 고귀한 피의 은덕으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의 예수님,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마소서.

저의 사랑 예수님, 그들이 그 밭을 거세게 잡아당기자 주님의 무릎 뼈와 갈비뼈, 그리고 가슴에 있는 모든 뼈들이 탈골됩니다. 아, 저의 선하신 예수님, 주님의 그 아름답던 눈은 빛을 잃고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



통으로 주님의 입술은 매 맞아 뒤틀리고 명들고 부어올랐으며, 뺨은 움푹 패었으며 가슴은 신음소리를 내며 헐떡입니다. 저의 예수님, 저는 그들이 주님의 한쪽 발을 다른 쪽 위에 포개 놓고 주님의 그 지극히 거룩하신 두 발을 관통하도록 무딘 대못을 박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그 대못이 주님 발들을 완전히 끊고 지나갈 때 사제들과 모든 민족들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어 어느 한 쪽도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소서.

오, 축복받은 예수님의 발이여!… 그 쓰라린 고통과 뼈마디 마디 마다 뒤틀리고 으스러지는 아픔과 흘러 나온 피로 인하여 주님의 상처 안에 모든 영혼을 감싸 안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주님의 몸은 온통 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 예수님, 이 피의 힘으로 어느 한 사람도 주님에게서 도망치지 못하게 해주시도록 간청합니다.

저의 예수님, 그 심장의 고통을 같 이 아파하고 찬양 드리며, 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혼들이 절대로 주님의 심장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희생된 영혼들에게 소명을 거듭 내리시어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삶을 이어가게 하소서. 그들이 그 자리를 절대 잊지 않게 하소서. 오, 예수님, 주님 심장의 불꽃으로 저를 태우시고 도구로 써 주소서. 주님의 피로 저를 아름답게 꾸미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고통과 보속으로 사랑에 못 박히게 하소서.

오, 저의 예수님, 형 집행자들은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입으로 땅바닥에 입 맞추십니다. 사랑이시여, 주님은 이 입맞춤으로 모든 영혼에 입을 맞추시고 그들을 구원 하시며

## 이 상처와 피는 불쌍한 인간들을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은총을 부르는 목소리가 될 것이다!

사랑에 묶어 놓습니다. 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대신하게 해 주소서. 형 집행자들이 못 끝을 구부리는 동안 그 못 박음이 저에게도 상처를 입혀 제가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못 박히게 하소서. 예수님, 온유하신 선이시여! 주님의 원수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 예수님, 쓸개의 쓴 맛과 타는 듯한 갈증으로 주님의 혀는 입천장에 거의 달라붙어 있습니다. 온유하신 저의 예수님, 저는 사랑의 강물로 쓸개의 쓴 맛과 타는 듯한 당신의 갈증을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사랑 예수님, 주님의 이 아픔을 덜어드리고 주님을 편안케 해드리기 위해 저는 모든 사람들의 거룩한 사명들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오, 예수님, 저의 고귀한 생명이시여! 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대 사람들의 발걸음을 모두 모아 그 발걸음이 모두 주님께 모이게 하여 주님의 극심한 고통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 오, 예수님, 이제부터 앞으로 저는 주님의 열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이라는 대못으로 이지극히 사랑하는 주님 심장에 제가 못 박혀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속을 주님께 바치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주님께 드리는 고통을 덜어드리게 하소서.

선하신 저의 예수님, … 이 거룩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성부께 그 연약하고 쇠약해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가 세상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지워지지 않은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늘나라 정의의 징벌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마시고 당신의 아들, 저에게만 내 리소서. 오,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에 세상 모든 영혼을 묶게 하시어 제 피와 상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는 제가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평화, 용서와 성화를 허락하소서."

오, 예수님, 주님께서 창에 찔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실 때, 주님 영혼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계시지 않고 거룩한 성부와 함께 하늘나라에 계시며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구원을 청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시여, 저는 영원하신 분의 옥좌 앞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느님 정의의 진노를 풀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주님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때문에 지극히 진노하셨음을 뵈올 때 주님 성부 앞에 무릎 끊고 엎드려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소서. 오, 저의 예수님, 성부의 진노를 가라 앓히시기 위하여 주님은 성부께서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머리에 눈을 돌려, 그 머리가 무수한 가시에 찔리고 주님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 오, 그리하여 이 가시들은 하느님의 엄위하심 앞에 사람들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청하는 진정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은 분노하시는 성부의 눈길을 거두게 하시려고 피로 뒤덮이고 눈물에 젖어 통통 부은 주님의 눈을 성부께 보이려 하십니다. 주님은 성부께서 저 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측은히 여겨주시기를 청하여 엄위하신 성부 앞에서 울며 호소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 저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죄악으로 물들어 전에 없이 죄악에 빠져 있으므로 더 이상 아버지의 자애로운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죄악을 씻기 위해 제가 온몸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



의 아들인 이상, 저는 만물의 우두머리요, 그들은 제 지체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해 주소서. 아버지, 이들을 구원해 주소서."

십자가의 예수님, 저는 전능하신 성부의 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음을 압니다. … 오, 저의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온갖 모욕과 멸시로 뒤덮인 지극히 거룩한 당신의 얼굴을 성부께서 굳이 내려다보시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저의 아버지, 가련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거절하시면 아버지께서는 저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진정하소서. 저는 제 얼굴에 이 모든 죄악의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불쌍한 인간들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들은 눈이 멀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러하오니 저를 굽어 살피소서. 제가 그들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굽어 보소서. 아버지께서 저 비천한 인간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면 온통 침으로 뒤덮이고 채찍과 발길질로 피범벅 되어 창백하게 부어오른 제 얼굴을 가엾이 여기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세상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으나 지금은 만신창이가 되어 저 스스로도 알아 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워 모든 이들에게서 거절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저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려 합니다!"

##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예수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 주님은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성부의 컷가에 울리게 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사혀버리시며 더 많은 축복과 찬양의 말씀을 성부께 드립니다. 주님은 외치십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베푸소서! … 아버지, 다시 한번 저를 굽어보소서.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 마시고 제 말씀만 들으소서. 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저 사람들 굽어보시기를, 저를 통해서 그들을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통하지 않고 그들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악행에 능하고 죄가 가득합니다. 자비!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쓸개로 인해 쓴 맛이 가득 퍼진 채 갈증으로 메마르고 사랑으로 불타서 말라붙은 제 혀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 오, 거룩하신십자가의 예수님, 주님을 무시하며 죄악에 죄악을 보태고, 끔찍한 신성모독과 살인, 자살, 결투, 사기, 협잡, 잔학행위와 배반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아, 이 많은 악행이 아버지의 팔을 얼마나 무겁게 합니까? 그래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시고 성부께서는 팔을 내리시어 이 땅 위에 진노와 파괴를 퍼부으시려 하십니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은 성부를 도와 사람들의 무게를 지탱하시고 성부께서 분노를 푸시고 하늘의 정의 실현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비천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느님께 간청하십니다.

"아버지, 이 찢어진 손과 이 손을 꿰뚫은 대못을 보소서. 제 손은 모든 악한 행동으로 못 박혔습니다. 저는 제게 행해진 악행의 비통함을 바로 이 손을 통하여 속속들이 느끼나이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 정도의 고통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이 고통은 아버지를 흡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억지로 떨어져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의 이 탈골된 팔은 불쌍한 사람들이 제게서 떨어져나가지 않고 붙어있게 할 사슬이 됩니다. 또 제 팔은 아버지께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못하시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묶을 사랑의 사슬

## 아버지, 제 심장을 보소서. 이 모든 슬픔이 아버지께 속죄가 되게 하소서.

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항상 아버지를 사람들 쪽으로 이끌어 아버지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퍼부어 주시게 할 것입니다."

저의 예수님, … 주님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타오르는 죄악의 불길을 끄고 죄악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고 싶습니다. 또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도록 성부의 마음을 움직여 려하오니 찢기고 상처투성이 되어 고통 중에 있는 주님 팔에 저를 일치시켜 주소서. 오, 저의 예수님, 성부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지극히 성스러운 몸, 같같이 찢긴 상처와 탈골이 된 주님 몸을 성부께 내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못 박힌 주님의 지극히 성스러운 발을 성부께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제 몸을 굽어보소서. 제 몸에 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 큰 고통을 받기 위해 상처를 내려 해도 성한 곳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과 고통의 이 공경에도 마음을 진정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아버지를 진정시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 인간들아, 너희가 이처럼 큰 사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회개시킬 희망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상처와 피는 항상 하늘에서 땅으로 흐를 것이고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은총을 부르는 목소리가 될 것이다!"

저의 예수님, 주님을 거역하는 죄악도 끊임없어 더욱 더 심한 수난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타는 듯한 갈증은 주님의 죽음을 재촉하고 씁쓸함과 고통과 사랑으로 숨막혀, 광란의 파도처럼 주님 앞으로 불어 닥친 인간의 배은망덕으로



인한 주님의 희생은 창에 찔린 주님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주님께서 흘리신 핏방울 방울마다 제가 스며들고 저도 피를 쏟아내어 주님 상처 하나하나를 낫게 해 드리고 가시관에 찔린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못을 뽑아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리고 제가 주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습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 아, 성부께서는 주님의 지극히 성스러운 몸이 그토록 무자비하게 파괴된 것을 보시고 또 죄악이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지체에 행한 끔찍한 일을 보시고 얼마나 측은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사랑에 대한 주님의 지극한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부께서는 그 심장에 주님을 끌어안으시고 주님께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성부께서 주님을 끌어안으시자 주님은 심장에서 못질과 채찍질의 고통과 상처의 찢김, 가시관의 고통을 그전보다 더욱 심하게 느끼십니다. 아, 성부께서 심하게 충격을 받으십니다.

이 모든 고통이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봉헌된 영혼들에 의해 주님 심장 안에서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성부께서는 무척 분노하십니다. 슬픔에 겨워 성부께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네가 선택한 사람들조차도 너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 영혼들은 네 심장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 숨어들어서는 오히려 너를 아프게 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듯하구나. 더욱 나쁜 것은 그들이 네게 주는 이 모든 고통이 위선으로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아니다. 아들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슬프게 하는 이 영혼들의 배은망덕에 나는 더 이상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다."

"아버지, 제 심장을 보소서. 이 모든 슬픔이 아버지께 속죄가 되게 하소서. 슬픔이 깊어질수록 아버지의 심장에 더 강하게 호소하여 이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은총과 빛과 용서를 얻어내게 하소서. 아버지, 이들을 내치지 마소서. 이들은 이 땅에서 제 생명을 이어갈 저의 옹호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보소서. 저의 몸은 이제 고통의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저의 심장 또한 제가 33년 동안 받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쓰라림과 고통과 고뇌로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만약 우리의 전능함이 제가 이 극한

## 예수님께서 불쌍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도록 주님을 초대하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내적 고통은 매 순간 순수한 고뇌로 저를 죽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아버지의 정의를 거두시도록 하기위해, 비록 지금은 타락했으나 우리에게 바쳐졌던 영혼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이에게 승리의 자비를 내려주시도록 하기 위해 저는 제 고통을 아버지께 바쳤습니다. 이제는 인간으로서 사는 모든 순간 동안 받은 고통에 짓눌려 부서지고 깨어진 제 심장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끝없는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사랑으로 항상 불타고 있는 제 심장을 눈여겨 보소서.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하여 아버지께 완전한 속죄를 드리기 위해 기꺼이 고통 받고자 하는 저의 심장입니다. 제 심장이 죽음과 맞서면서 겪는 비참함, 끝없는 슬픔, 고뇌, 답답과 슬픔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 아버지, 제 심장이 고통과 피의 희생으로 아버지 영광과 제 형제들 구원을 갈망하지 않았던 적이 한 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버지 현존 앞에, 아버지 자비를 구하며 33년 동안 간청했던 제 울부짖음과 열렬한 탄원과 신음소리, 한숨이 바로 이 억눌린 제 심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제가 저 무수한 영혼들을 위해 한 없이 감사드린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영혼 하나하나를 모든 영혼들 전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 중 단 하나라도 사랑에서 제외된다면 제 심장은 고통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봉헌되었던 영혼들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며 이 고통스런 십자가 형틀 위에서 제가 저의 마지막 탄식을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너무도 완고하고 감사할 줄 몰라 제 사랑과 배려를 모두 거절한 유다의 사악함과 그를 영원히 잊음으로써 느끼는 고뇌와 고통으로 죽어갑니다. 저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마치 유다를 사제와 주교로 만들듯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고통의 심연이 더 커지지 않게 해주소서! 성스러운 소명을 갖도록 선택한 이들 중 너무 많은 영혼들이, 유다를 닮으려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우소서. 아버지, 제발 도와주소서. 저는 이 고통을 모



두 견딜 수 없습니다. 갈갈이 찢긴 제 성스러운 몸보다 덜 고통당한 부분이 한 가닥이라도 제 심장에 남아있는지 보아 주소서. 사랑과 고통으로 무너져 버린 제 심장에서 훌러나온 피가 제 몸의 모든 상처에서 훌러나온 피보다 더 많지 않은지를 보아 주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한없이 고통받기 원하오니 제가 아니라 모든 영혼들, 특히 저의 성스러운 제사, 제 사랑의 정배에 불림을 받았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들어 주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제 심장은 불타는 듯, 숨차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고통을 통하여 저는 이 불행한 영혼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아버지께로 향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이 영혼들 중 단 하나라도 우리의 사랑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영혼들, 특히 이들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이들 영혼 하나하나에 대한 더 많은 고통에 갈증을 느낍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당신의 뜻대로 행하였나이다. 지금 아버지의 뜻이기도 한 저의 뜻이, 아버지께서 모든 아름다운 기쁨을 얻게 되는 당신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우게 하소서."

저의 예수님,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주님 심장을 주게 하소서. 그들의 냉혹함이 따뜻해지고 미온적인 마음이 흔들려 발길을 주님께 돌리고 그리하여 그들이 거부했던 모든 은총을 다시 받게 하소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고통과 심지어는 다른 영혼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영혼, 예수님께서 불쌍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도록 주님을 초대하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

( 위의 내용은 '성의(성모)의 작은 딸'이라 불리던 루이사 뼈까레따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수난의 시간들의 – 오전 11시~12시 –에서 발췌 및 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기도문이 필요하신 분은 <http://blog.naver.com/rkmoonsf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실 주 –)



#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자 :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 이 : 남기옥 마르타

**질문 :** 목격증인들은 성모님께서 당신의 발현보다 거룩한 미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다고 전합니다.

**요조신부 :** 성체는 성사이고 신앙의 신비이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성체를 통해 교회가 탄생하였고 하느님과 일치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사시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뺑과 포도주가 예수님이의 살과 피로 성변화 되는 거룩한 미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부활 합니다. 그래서 미사는 항상 통회의 예절로 시작하는 것이죠.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미사경본에는 성작에 딱 한 방울의 물을 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자극히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미사가 거행되는 동안 하느님과 일치하며 자신의 무력함과 나약함안에 있는 생각과 고통, 눈물과 십자가가 예수님과 일치해서 그분의 가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자유롭게 된 이들은 다른 이들도 구원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미사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이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제대를 외면하는 것은 교회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태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을 시장판으로 만들어서 가능하면 돈을 더 많이 벌려는 각축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희생제사에 봉헌될 어린 양들과 비둘기들이 환전상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께서는 성전에서 돈 버는 것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이런 상인들의 좌판을 뒤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한 2, 16) 거룩한 주일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지금의 주일은 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주일을 늦잠 자고 스포츠와 텔레비전과 영화를 즐기거나 소풍을 가고, 식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계으름을 피우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의 주일은 계으름 피우는 날과 같은 말이 되었고, 백수가 되는 날, 소위 말하는 웰빙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유혹을 즐기는 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믿음과 친교의 나눔을 해야 하는 주일미사를 외면하는 것은 엠마오의 순례길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놀라운 체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루카 24, 13-35 참조) 주일미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고 사제와 모든 본당신자들이 함께 그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야훼께서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정하신 주일이 놀고 먹는 날이 아니라 우리 삶안에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날'이라는 인식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모님께서는 메시지에서 우리들의 성화에 대해 언급하셨

##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소의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현대에 성인(聖人)이란 무슨 뜻입니까? 과연 누가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의 소명은 진실되고 복음적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소명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진실한 삶이고 우리에게 제시된 삶입니다. 거룩함은 한계와 나약함을 지닌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하는 희망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들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활동이고 하느님의 선물이며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의 부르십입니다. 하느님의 형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아담이 했던 것처럼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숨어버리면서 어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추상적 이거나 허황된 속임수도 아니며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 성사는 하느님과 인간을 일치시켜서 우리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워주고,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빛과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보상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그리스도인적인 교육과 신앙으로 성장할 때 죄는 하느님의 섭리와 평화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과 불안과 불행을 조장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확고한 자신의 의지로 악과 죄를 버리는 노력은 거룩한 생활, 사랑과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불타는 장작을 내던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불타는 장작을 맨손으로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고귀함과 성화의 길로 초대받은 우리는 성령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질문 : 성모님의 메시지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조신부 :** 성모님의 메시지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현실적이고 단순한 새로운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물을 너무 쉽게 오염시킬 수 있지만 물이 필요없어서 오염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저장해 둔 물을 다 사용했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서 다 써버렸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항상 물은 필요하고, 목마름은

늘 존재할 테니까요. 우리에게는 복음과 같이 성모님의 메시지들도 필요 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분 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성모님의 메시지는 가나안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어려움에 동참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세상이 성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오늘날 인류가 목말라 하고 있는 평화와 사랑과 은총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정녀의 현존과 함께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들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 들인다면 성령의 감도를 받았던 엘리 사벳처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루카 1, 43)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곳에 내 하느님의 어머니가 계시구나!"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 순례 때 성모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평화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조신부 :** 먼저, 순례자와 여행자 사이에는 크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순례자입니다. 동정녀께서는 처음 발현하실 때 돌투성이뿐인 팻보르도 산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장소로서 돌 같이 굳은 마음과 가시덤불들을 걷어내주시기 때문에 올라갈 때와는 다른 마음을 갖고 내려오게 됩니다. 순례책임자들은 팻보르도 산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 동정 마리아의 현존하심과 발현의 의미, 하느님과 성령의 활동에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례자들이 성모님과 그분의 계획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고 할 수 있는 평화와 은총을 체험하면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활동 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메주고리예에 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례 후, 분명한 인식을 갖고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순례자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메주고리예의 순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초대이고 인내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모 성월인 5월을 맞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M**



#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어느 사제가 마더 데레사에게 "저는 수녀님과 사랑의 선교회에 관해서 책을 새로 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마더 데레사는 이를 흔쾌히 승락하며 이처럼 대답했다.

"좋습니다, 신부님. 저희들에 대한 책을 써주십시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방문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살피고,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드리고 위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노동, 우리들의 고통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행하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 외에는 어떤 다른 의미도 또한 다른 어떤 동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저는 하루에 24시간을 예수님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이 집에 들어서면 저는 언제나 가장 먼저 그 방문객을 성당으로 안내합니다. 그 방문객이 잠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방문객에게 말하죠. 우리 먼저 이 집 주인께 인사를 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한답니다. 우리 그분께 봉헌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이곳의 삶을 영위하고 또 그 안에서 행복과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전 생애에 걸쳐 할 수는 없었겠지요. 혹, 일이 년이라면 모르지만요.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주셨던 바로 그분과 함께 고통을 나누게 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M**



# 용서를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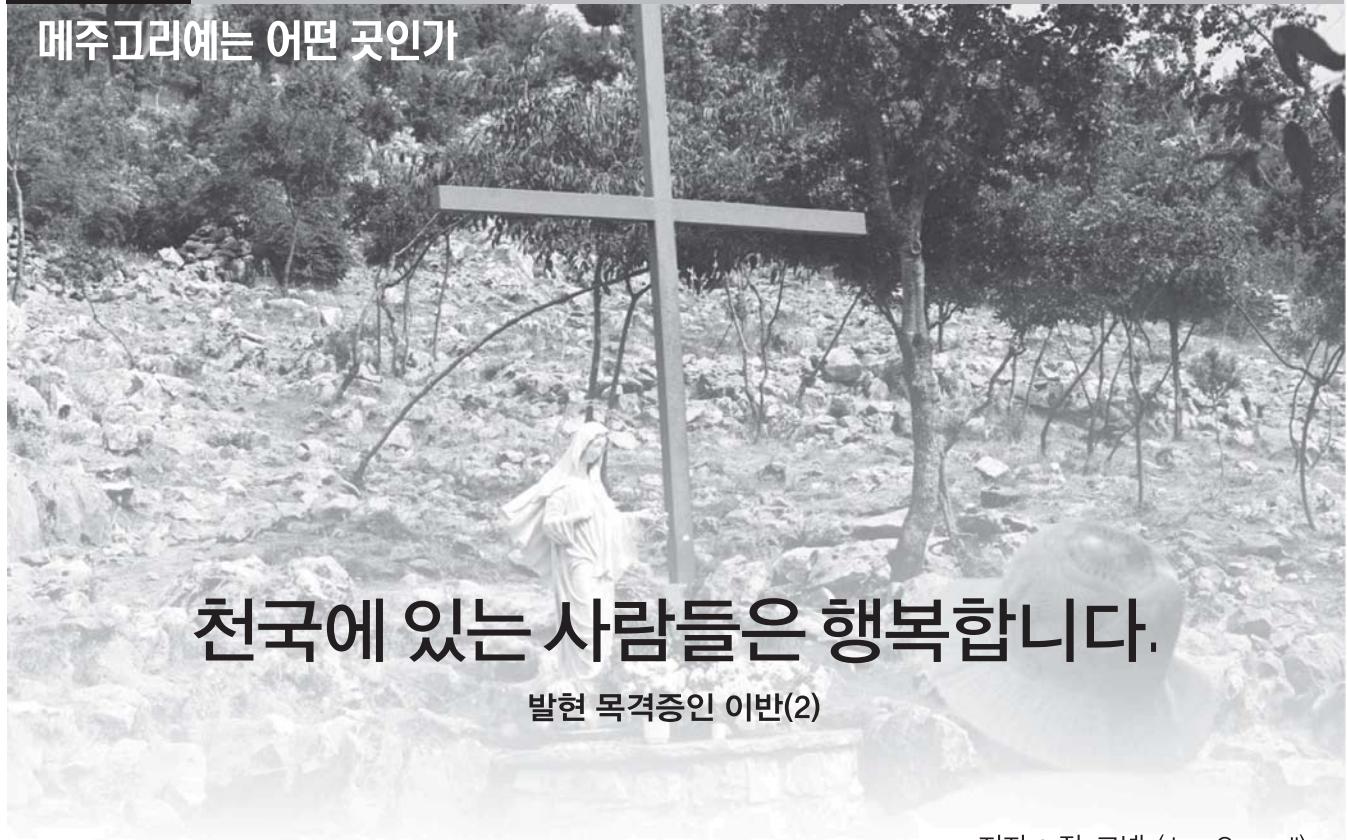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의 당신을 바라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이를 용서하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엔 죄가 많은 자신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진정 용서하는 일은 왜 이리 힘든지요.

제가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직도 미운 모습으로 마음에 남아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믿었던 일들이  
어느새 어둠의 뿌리로 칭칭 감겨와 저를 괴롭힌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어지던 화해의 다리가  
제 옹졸한 편견과 냉랭한 비겁함으로 끊어진 적도 많습니다  
서로 용서가 안되고 화해가 안되면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늘 망설이고 미루는 저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꾸짖어 주십시오.  
언제나 용서에 더디어 살아서도 죽음을 체험하는 어리석음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제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땐 온유한 마음을 다른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땐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하루 해 지기 전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잔잔한 마음에 거센 풍랑이 일고 때로는 감당 못할 부끄러움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을 넓혀가는 삶의 길로 저를 이끌어주십시오,  
주님, 너무 엄청나서 차라리 피하고 싶던 당신의 그 사랑을 조금씩 닮고자  
저도 이제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렵니다.  
피 흘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이를 끌어안은 당신과 함께  
끝까지 용서함으로써만 가능한 희망의 길을 끝까지 가렵니다.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저를 재촉하시며 가시에 찔리시는 주님  
용서하고 용서받은 평화를 이웃과 나누라고  
오늘도 저를 재촉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 이해인 수녀님의 "다른 옷은 입을 수가 없네" 중에서 –

## 매주 고리에는 어떤 곳인가



#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발현 목격증인 이반(2)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역자 : 신경남 신부



질문 : 성모님께서는 어떤 하느님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함께 만나 기도하고 단식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까?

이반 : 세상의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는 당신에게 매일 미사에 참례하라고 격려하십니까?

이반 : 네 그렇고 말고요, 미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미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미사는 제 삶의 중심입니다.

질문 : 당신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빵과 물만으로 단식합니까?

이반 : 네.

질문 :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반 :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삶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메시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 : 이반, 비밀에 관해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반 : 비밀에 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 : 두렵습니까?

이반 : 아뇨.

질문 : 당신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반 : 그런 결정들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질문 : 이반, 당신이 사후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반 : 저는 이미 천국을 보았습니다.

질문 : 천국에 대해 말해주시겠습니까?

이반 : 천국은 정말이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가야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느님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죽음을 물리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질문 :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반 :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 반드시 천국을 체험해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질문 : 연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반 : 네. 성모님께서는 연옥에 가는 사람들은 단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믿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있는 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을 경우, 연옥으로 갑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바로 갑니까?

이반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을 위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고통 받을 것입니다.

질문 :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반 :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반 : 제게 삶으로 중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단식하며, 제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알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미국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achovia Bank 구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미국

한국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동이체 후원 : 신한은행

구좌번호 : 100-021-159808

연락처 : 박안젤라 019-252-1387

권 레지나 010-3654-3521

노마리노 010-7310-9678

E-mail : qpmmkr@gmail.com

질문 : 당신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반 : 저는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문 :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반 : 성모님께서 제게 말씀해주 신대로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반 : 네. 성모님께서는 제게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단식하며, 메시지들을 살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반 :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지라고 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라고 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에 충실히 응답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M

(다음호에는 목격증인 야콥 출로의 체험담이 연재됩니다.)

이 기사는 6명의 메주고리예 발현목격증인 체험담인『우주의 여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 : 박창득 몬시뇰

지도신부 : 박창득 몬시뇰 (뉴악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회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선교학 박사)

한국지부장 : 박연자

후원회장 : 권수정

웹관리자 : 이 토마스, 권 아네스

편집인 : 남미자

편집위원 : 최미정, 이금희, 김성주

인쇄 : 동방인쇄출판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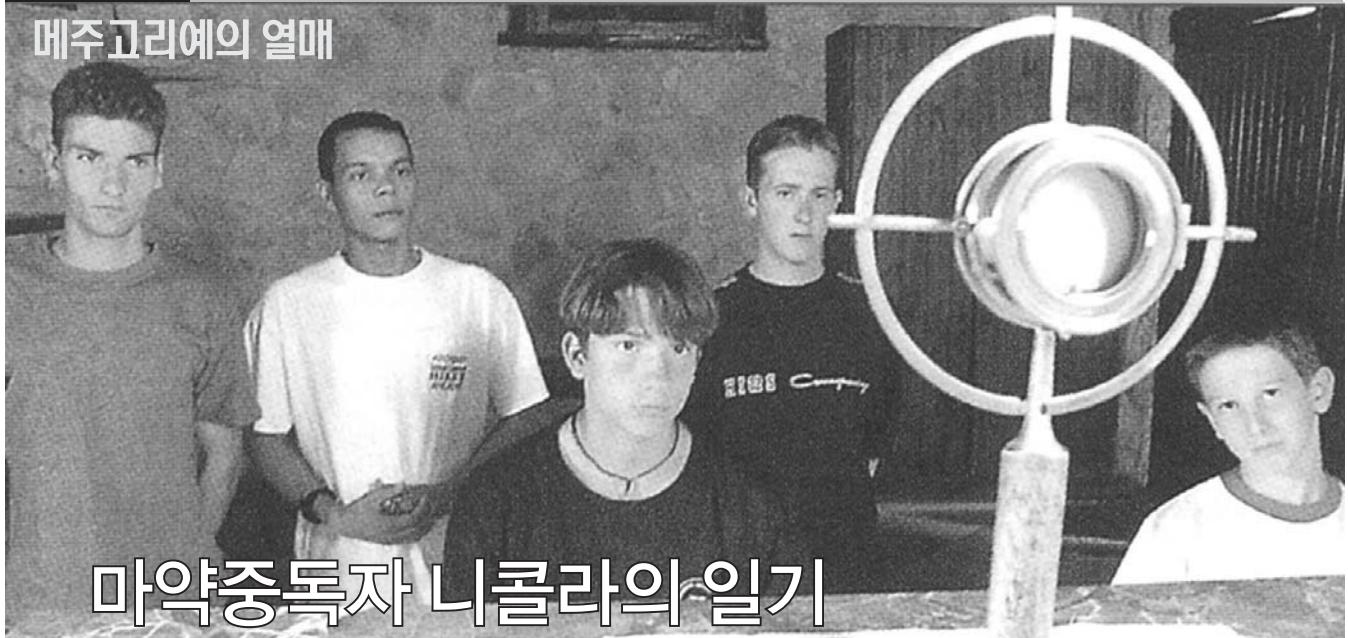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 메주고리예의 열매



### 마약중독자 니콜라의 일기

니콜라는 1968년 11월 13일 북 이탈리아의 몬훼라도에서 태어났다. 3남매 중 외아들인 니콜라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다. 니콜라가 14살에 마약 소지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가족들은 그가 마약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도 니콜라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와 외로움에서 오는 좌절감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중독자가 되어살아 갔다. 결국 에이즈 환자가 된 니콜라는 하루 하루를 견디어 낼 수 있는 마약과 돈만이 필요 한 어둠에서 매년 감옥생활을 반복하며 살아갔다. 니콜라가 19살이 되었을 때 새로운 삶을 살고자 건축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했으나 3년 후 그는 다시 집을 떠나 길거리를 배회하는 마약중독자가 되었다. 1992년 11월 13일 마약과 에이스 감염으로 건강이 악화된 니콜라는 체나 콜로 재활원에 입회하였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곳에서 자신과 같이 현실에 대한 불만과 혼란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순간의 쾌락에 빠져 마약중독에 빠진 수 많은 젊은이들을 본 니콜라는 극심한 고통중에도 진통제를 거부하고 자신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봉헌하였다. 니콜라의 일기는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작은 희생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살아 가는 이 시대에 많은 깨달음을 준다.

- 편집자 주 -

#### 아버지, 당신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오니…

1996년 2월 18일

수녀님, 우리는 때로 자신의 운명이 가장 힘들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통증을 잊기 위하여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한 수녀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데리고 병실 문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녀님, 그 자매의 겁에 질린 얼굴은 정말 저를 걱정스럽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녀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녀님, 저는 그 자매의 눈에서 보았던 외로움과 두려움에 젖은 공포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그녀를 생각하면서 비록 지금은 그녀가 혼수상태일지라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고통으로 불평하고 지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수녀님, 저는 그 자매에게도 좋으신 하느님의 현존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힘이 없어서 그녀를 도와줄 수 없네요…. 그런데 혼수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는 제게 큰일을 해주었습니다.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보같은 일이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아버지, 당신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오니 부디 그 자매와 함께 해주시어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보살펴주세요."

####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1996년 2월 20일

엘비라 수녀님,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던 그 자매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얼마나 크신지요. 아직은 그녀가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지 못했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왜하는지 묻지 마십시오...

동안 그녀가 회개하여 하느님을 그녀의 삶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 건강도 어려운 고비는 지나간 것 같지만 온 종일 병상에서 지내다 보니 지난 과거에 좋았던 일들과 방황하던 때의 일들이 계속 되살아나면서 머리속을 어지럽힙니다. 만일 제가 우리 아버지와 좀 더 가깝게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아버지를 만난다면 가족인 것은 알겠으나 어쩐지 마음은 편할 것 같지 않네요… 수녀님, 어쩌면 제 마음 깊은 밑바닥에서는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온 몸의 피가 부글부글 끓어 오른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지나간 과거이고, 또 아버지도 지금은 후회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내면에서 분노가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비라 수녀님, 그것은 정말 나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하느님을 향해 회심하는 길에 큰 장애가 될것이구요… 오늘은 제가 건강하게 목공일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건강을 되찾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더불어 하느님께 온 힘을 다해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게 베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1996년 3월 1일

수녀님,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어떤 사람을 도우려면 먼저 그들을 사랑하여라." "너희는 많은 죄를 용서 받았다. 너희들을 무한히 사랑하 기때문에."라는 말씀들이 저에게 무엇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수녀님,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기도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기도를 하면 제 마음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느님과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 베푸는 마음, 너그러움, 평화와 기쁨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내적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병세가 무척 위독한 로렌조는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병자성사를 받고 성체를 모셨습니다. 회심을 향한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저도 로렌조를 보면서 진정으로 나의 모든 죄를 참회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고통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

1996년 6월 6일

엘비라 수녀님, 저는 지난 주에 신부님께 병자 성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성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던 것은 산소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고열이 오를 때는 마치 폐가 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지고왔던 저의 십자가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힘들지만 제가 이 십자를 끝까지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필요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몇 달은 오로지 이 갈바리아의 고통이 하루 속히 끝나기만을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수녀님, 지난 밤에는 또 다시 높은 고열로 폐와 심장에 위기가 왔었지만 이번에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좀 더 깊은 믿음과 희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받는 고통을 위하여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제 고통을 지켜보는 힘든 시간을 갖게 해드려서 미안할 뿐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 왜 마약을 하는지 묻지마십시오.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정안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으며, 신앙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희망을 잃었으며, 아무도 신뢰할 수 없었기에 믿음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들은 이 시대의 희생자이며 사도들입니다. M

(체나콜로 공동체 출판의 'Beyond Aids'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나 저 불빛이 보여!"

- 42년간 앞을 보지 못하던 여인이 받은 치유 -

2010년 10월 16일, 스위스에서 46명의 순례자들이 메주고리예로 가는 버스에 오르기 위해 모였다. 순례자들 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조엘이라는 자매와 12살 된 그녀의 딸 바시안, 그리고 조엘의 친구인 클로디아가 함께 동행했다. 메주고리예로 향하는 길은 순조롭지 않았다. 일행을 태운 버스는 이틀이 지나서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진입하는 국경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 있던 버스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순례자들을 태운 버스는 다른 국경에서 입국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을 당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다행히 두번째 입국을 시도한 곳에서 메주고리예로 가는 현지 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순례자들은 모두 그 버스를 타고 메주고리예로 가기로 결정했다. 정류장에서 스위스에서 타고 온 버스에서 짐을 내리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던 일행은 늦은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메주고리예 마을에 도착했다.

다음 날, 순례자들이 성모님이 처음 발현하셨던 산에 올라갔을 때 앞을 못 보는 조엘도 함께 있었다. 비가 와서 미

끄러운 산길을 걷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일행들은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일치하여 기도하면서 올라갔다. 그 날 저녁, 일행은 메주고리예의 저녁 예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성 야고보 성당에 모였다. 묵주기도가 끝난 후 미사에 참석한 조엘은 성체를 받아 모신 후 잠시 이상한 느낌을 받고 불안한 증세를 보였으나 함께 온 올리버 신부의 도움으로 안정을 취했다. 다음 날,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십자가산을 올라 갔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조엘과 몇 명의 순례자들은 지도신부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 청동상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한편, 십자가산을 오른 일행들은 조엘을 위해, 특별히 그녀의 시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지향하며 모두 성심껏 기도하고 있었다. 여섯 시간 후 그들은 산을 내려와 그 전날처럼 성 야고보 성당의 저녁 미사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미사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시기 위하여 조엘이 고개를 들자 백색 제의를 입고 있는 사제가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다. 놀란 조엘은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자 성당의 불빛들과 높은 천장과 창문들이 보였다. 빛을 본 조엘은 너무 놀라서 마음을 주

## 42년간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녀는 이제 두 남동생들과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체하지 못하고 당황했다. 옆에 있던 친구 클로디아에게 부탁하여 성당 밖으로 나간 조엘은 그녀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나 저 불빛이 보여!"

계속해서 성당 주위를 걸어가던 그들이 제의실 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메주고리예에 함께 온 올리버 신부와 마주쳤다. 조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은 올리버 신부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메주고 리예에서 늘 하는 것처럼 저녁미사 후 바치는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를 하기 위해 즉시 성당으로 돌아갔다. 다른 순례자들이 조엘과 클로디아 주위로 모여들었을 때 올리버 신부가 돌아와 모두 다시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권했다. 일행들은 모두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치유를 감사 드리고 찬미하면서 열 명의 치유받은 나환자들 중 한 명만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복음 말씀을 묵상하였다. 이후 일행은 성당 앞에 있는 모셔져 있는 성모님상 쪽으로 이동해 감사 기도를 계속한 뒤 숙소로 돌아갔다. 다른 순례자들은 조엘이 성체를 받아 모실 때 그 뒤에 있었는데 그 당시 장미향을 강하게 맡았노라고 증언했다. 일행들보다 먼저 숙소로 돌아온 올리버 신부는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두를 큰 방으로 초대했다. 조엘과 클로디아가 숙소로 돌아왔을 때에는 모든 일행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당에서 이 치유가 있을 때 조엘의 딸 바시안은 함께 있지 않았었다. 바시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다른 일행과 함께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엘이 딸에게 말했다.

바시안, 머리를 감았구나?"

딸이 대답하며 물었다.

"응,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방에 모이라고 한 거야?"

조엘은 딸에게 물어 보았다.

"바시안, 엄마가 뭐 달라진 게 없니?"

"없는데?"

"그럼 다시 엄마를 바라보렴!"

딸이 놀라서 소리쳤다.

"엄마, 보이는 구나!"

조엘과 바시안은 기쁨에 겨워서 몇 분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떨어질줄을 몰랐다. 우리는 비록 그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그 때 어머니와 딸, 그리고 같이 있던 모든 순례자들이 느꼈을 감동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함께 바치는 찬미와 감사가 이어졌고, 일행은 성모님께서 너무도 자주 발현하셨던 청십자가를 찾아가 기도 했다.

조엘은 자신이 받은 치유와 체험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했다. "첫날 밤 미사에 참석 후부터 빛이 보이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의 시각은 서서히 좋아졌다. 42년간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녀는 이제 두 남동생들과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쳤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왔노라고 말했다. 그녀는 딸 바시안에게 "나의 햇불"이라고 표현하며 특별한 애정과 감사의 표현을 했다.

시력을 회복한 후 조엘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특히 수많은 높은 건물들과 사람들을 보는 것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녀는 이로 인해 종종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아프곤 하였다. 그러나 조엘은 42년 동안 간혀 살던 어둠에서 해방되어 치유받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과 성모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갑자기 보게 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색깔, 집, 나무와 풀들, 자동차, 사람, 태양, 그리고 그녀의 고양이를 볼 수 있다! 지금도 안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조엘은 예수님께서 한 번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지어주실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자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그녀의 딸은 "우리 집엔 평화가 있어!"라고 엄마에게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엘은 이렇게 자신이 받은 치유에 대하여 말했다. "이 치유가 저에게 어른의 몸을 주었지만, 저는 아이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

Sight restored at Medjugorje에서 발췌 및 번역





## 땅끝까지 전해지는 성모님의 사랑

+ 찬미 예수님!

보내주신 소식지 받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얼마전부터 인터넷이 연결되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잖아도 12월 8일 "성모 무염 시태 대축일"을 전후해서 3번에 걸쳐 메주고리 소식지 30권이 배달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서 잊고 있었는데 성모님께서 성모님의 대축일과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해서 뜻밖에 커다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요.

1979년 12월 8일 토요일 그때는 장로교회를 다닐때라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했는데 1986년 12월 20일 바로 어제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고는 결혼기념일이 "성모님의 무염시태대축일"임을 알고 기쁘고 감사해서 이날이 되면 항상 감사미사를 봉헌했는데 이곳엔 평일미사가 없는 곳이라 미사를 드릴 수 없어서 애석해 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떡과 과일을 준비하고 레지오단원들을 꾸리아 단장집으로 초청해서 메주고리예에서 가져온 비데오를 보여주고 보내주신 소식지를 나누어주며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를 알려주고 복사해 두었던 메주고리예 성

모님 상본을 나누어 주는 등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참으로 뜻 깊게 보냈습니다.

이곳은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만 영적으로도 너무나 가난합니다. 성서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없는 양과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는 말씀을 이곳에서 실감합니다. 이곳의 신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 가난해서 마치 반찬도 없이 밥만 먹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곳 ○○은 신부님과 수녀님이 안계셔서 ○○성당 신부님이 오셔서 주일미사만 해주시는데 그것마저도 눈, 비가 많이와서 날씨가 나쁘거나 ○○성당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공소 예절만 할때가 많고 성탄대축일 밤미사와 부활대축일 밤미사를 드려 본적이 없답니다.

그러니 교리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세례를 받아 냉담하는 신자들이 많고 "피정"이라는 단어가 무슨뜻인지도 모를만큼 신앙교육은 물론이고 성경공부조차 받아 본적이 없으니 세례는 받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집에 효자난다"고 하느님의 섭리 하심으로 10여년전에 ○

## "목자없는 양과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는 말씀을 이곳에서 실감합니다.

○에 있는 몇곳의 성당중 유일하게 "레지오마리에"가 설립되어 열성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선교활동을 할 수없는 저희 부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줄아는 사람도 없어 한국레지오 상급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못해 답답해하는 단원들에게 여러가지 자료들을 뽑아주고 규칙과 기도문을 복사해주고 단원들과 함께 가난하고 아픈사람들, 냉담중인 사람들, 전교대상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만들어 교리와 전례를 알려주고 피정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국신부님들의 강론과 좋은 영서적인 글들을 주보에싣고 각종 기도문과 예비자교리서를 편집하여 보급해주고 가끔 모르는 성가와 교리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것들은 저희가 이곳에와서 교우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에 가능한 일들이었고 하느님께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주신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모든것을 하느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살것입니다.



오랫만에 인사를 하다보니 궁금 하실것 같아 저희 얘기만 하고 말았군요.

어머니 마을도 보고싶고 신 신부님과 두분도 뵙고싶고 모두 모두 그립습니다

그리고 메주고리 소식지 너무 고맙고 선교회 가족들에 게도 감사하다고 안부전해주세요

기쁜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두분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에서 하느님의 종 드림 M

### 마술상자

어떤 사람 있었다. 그는 매사에 고민과 걱정으로 항상 불안했고, 늘 초조하게 살아갔다. 그 고통이 심했던 터라 그는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다. 일주일 내내 불안과 초조 속에서 고민거리에 잠겨 있기보다는 금요일을 '고민의 날'로 정하여 그날 집중적으로 고민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적어 상자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일주일 동안 적어 두었던 메모지를 꺼내 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큰 문제나 고민거리라고 생각하고 넣은 메모들이 나중에 보니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걱정으로 불안, 초조를 겪기보다는 마음의 평정을 찾은 다음 그 문제를 들여다 보면 어떤 해결책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 머리 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는 주님!

세클라멘토 문바실리아나

저에게 좋으신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구로 써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그야말로 발바닥 신자로 주일미사만 지키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주교는 엄숙하고, 고요하고, 장엄하다고. 그렇게만 생각했기에, 성령대회때 곁에 있는 사람들 생각 안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제가 성령대회에 참가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두 성가를 들으며 하느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신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찬미를 드리면서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날 하루 종일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번째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하는데, 남비뚜껑이 얼마나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던지..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수 많은 나무들은 얼마나 푸르던지.. 그때 저희 집은 담이 없었는데 그렇게 많은 나무가 있었는지 몰랐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은 변한것이 없는데 ... 내가 변화되니 매사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잠을 잘 때마다 시간이 모자라 시험문제 못풀고 힘들어 하다 깨어나는 꿈이 지난 10여년 동안 나를 괴롭혔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꿈을 꾼적이 없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하여 찬미의 기쁨을 배웠기에 성령기도회와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전 항상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그 흔한 유행가는 멀리하고 하루 종일 성가만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가를 배우고 부르기에도 시간이 모자랐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아들들이 감히 예수님을 'brother'하고 부르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저는 십자가도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성령 세미나'를 통해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brother'이자 사랑하는 애인이 되셨습니다. 운전하다가 초생달을 바라보면 오! 예수님이 웅크해 주시네! 보름달을 보면 나를 보고 활짝 웃으시네! 혼자 커피 마실때면 예수님 커피 드실래요? 밤에 잠 못들면 ~ 예수님 ~ 어서 오세요~ 성령기도회 끝나고 밤 늦게 한 시간 운전하고 집으로 갈때면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구원자 예수'를 부를때면 친근하고, 부드러운 예수님 사랑에 푹 젖어서 행복했습니다. 매일 집 근처의 미국 성당에서 아무도 없는 감실 앞에서 예수님만 생각하며 성체조배할 때는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단둘이서 데이트하면서 마음대로 하트 사인도 보내구요... 저는 기도 지향이 있을 때마다 성모님께 드리는 9일 기도와 54일 묵주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곤 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54일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희 부부 정말 사랑하는 부부로 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 기도는 100% 이루어졌고 저희는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모님은 저에게는 그냥 성모님이셨지 우리 어머니는 아니셨습니다. 늘 그랬듯이 감히 제가 어떻게 성모님을... 그런데 메주고리예에 갔다 와서는 오직 나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 묵주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는 성모님

제가 메주고리예를 찾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흔히 사업에 망했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제게도 덮쳐왔고 가게 4개를 잃은 후 너무나 많은 빚더미로 낭떠러지 끝까지 가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다락방 봉헌식을 2주 남기고 주위분들과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バス락 거리는 소리를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큰 모습의 성모님께서 우리집 거실에서 우리 가족, 남편과 아들 둘을 두 팔로 감싸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성모님을 뵈었을 때는 "내가 제 정신이 아니군!"... 그런데 일주일 후인 봉헌식 마지막 날에도 성모님을 뵈었습니다. 저는 환시일거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봉헌식을 하는 날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쓸 때 집에서 본 성모님의 모습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성모님께 대하여 이것저것 물어 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모님은 하늘 하늘 부드러운 실크같은 망토를 입으셨는데 왜 그 성모님은 뺏뻣한 파란 비단 같은 옷에 수가 놓여 있는 것을 입고 계셨을까...! 엄마는 "성모님께서 일부러 네가 보게 하시려고 바스락거리는 비단옷을 입고 오셨나보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잊어 버리고 1년이 넘게 지난 어느 날 저는 늘 하던대로 아무도 없는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책에서 과달루페 성모님이 디에고 성인에게 나타나셨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발현하신 일도 있었구나! 하며 고개를 든 순간... 오! 하느님!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온 몸에 강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집에서 제가 본 성모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당에는 과달루페 성모님의 모습이 아주 큰 액자안에 모셔져 있었는데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당은 제가 좋아하는 곳이라서 1년을 넘게 매일 매일 그 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출기도 하고, 혼자서 성가도 부르면서 기도하던 장소인데 저는 그 과달루페 성모님 액자가 모셔져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메주고리예 성지 순례를 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더미에, 비싼 이자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유럽이라니... 주위에서 정신 나갔다는 듯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메주고리예를 가보고 싶은 일념에 다른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게를 비워야 하

는 것과 순례 경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남편과 아들 둘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간다고 하여 미카엘라 언니에게 상의하였을 때 "친정 어머니 집에 가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서 바리바리 싸주시지 않느냐, 성모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더 잘해주실것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통해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결국 우리 4식구가 함께 메주고리예 순례를 떠났습니다. CA에서부터 3번 갈아타는 비행기 일정이 무리였는지 더운 날씨에 지치고 피곤해서 그 아름다운 드브 로브닉 경치의 설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쉬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나니 피로가 풀려서 아름다운 아드리안 해안 경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일행들은 메주고리예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미사에 참석하려 성당에 가니 이미 성당안은 각 국에서 온 수 많은 순례자들이 별씨 자리를 꼭꼭 채우고도 모자라 바닥에까지 빽빽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당바닥도 끓어 앉은 사람들의 옷 끝으로 이미 구석 구석 말끔이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성당안이 더워서 좀 답답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성시간... 잊을 수 없는 성시간...!!! 마음을 열어주는 기타와 바이올린 소리... 수 많은 순례자들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 언제나 성체 조배를 할 수 있는 곳... 그 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향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성당안에만 아니라 밖에도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 많은 사람들과 귀담아 들어주는 신부님들... 마음을 다해 미사 드리는 신부님들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 거리를 걸으면서도 묵주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곳... 어머니의 현존하심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장미 향기... 정말 이곳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메주고리예는 마을 자체가 진정한 믿음을 가르쳐주는 기도의 학교였습니다. 저는 부활 청동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의 신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곳에서 흐르는 물에 수건을 적셔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 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통역을 해주는 남마르타 자매님의 천상의 목소리를 통하여 가슴에 꼭꼭 박히는 주님의 말씀들... 너무나 아름다우신 어머니, 티할리나 성모님을 제가 어떡계

## 메주고리예는 마을 자체가 진정한 믿음을 가르쳐주는 기도의 학교였습니다.

잊을 수 있겠어요? 메주고리예는 밤이든 낮이든 거리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 대한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성모님 마리아님이라고 부르던 내가, 나도 모르게 어머니란 말로 너무나 쉽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오아시스 수도원의 수녀님 체험담에서 배운대로 아침에 학교갈 때, 그리고 저녁 기도후에 아들들과 껴앉고 인사할때 이마에 꼭 십자성호를 그어 줍니다.

어느 날, 남편과 두 아들이 밖에서 미사 드리고, 저는 성당 안에서 미사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가슴이 복받쳐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나를 발견하였는지 남편과 두 아들이 눈물이 그득한 눈으로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 마르티노가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우니까, 남편 율리아노와 막내 도미니코도 같이 울었고, 나를 찾으려 함께 성당안으로 들어왔답니다. 힘들게만 한 엄마인데… 오, 주님! 성모님! 우리는 넷이 껴안으며 서로에 대한 큰 사랑을 마음속 깊이 담았습니다.

아침 한국어 미사때 "널 위해 기도하네." 성가를 들으며 가슴이 터질 듯 얼마나 통곡, 통곡했던가! 늘 성가를 부를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웃? 그런데 그 날 바로 성모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던지요… 어릴 때 꿈꿔왔던 큰 오빠같이 자상한 요셉신부님… 시원한 맥주로 터위를 달래던 저녁 식탁의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천사였습니다 … 두 미카엘라 천사, 세실리아 천사, 율리아 천사, 마리아 천사, 두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던 요셉 부부 천사, 아녜스 천사, 많은 천사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메주고리예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의 기분은- 혹시 물 위에 누워보셨나요? 온 몸에 힘을 빼고 물위에서 편안하게 둉둥 떠다닐 때의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 기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가슴속 한 구덩이에 큰 돌멩이가 아닌 꽉꽉 채워진 단단한 모래주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메주고리예에서 기도하고 성당 다니면서 어느 새 다 솔솔 빠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다니던 길에 솔솔 뿌려져 있을 모래를 때문에 더러워져 있을 것 같아 벗자루를 손에 들고 청소하려고 뒤통아 보니 어느새 어머니께서 말끔히 청소까지 해 놓으셨어요! 어머니! 친정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나의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 성서를 읽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귀절이 성모님이 하신 "무

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데로 하여라." (요한 2:5) 입니다. 하늘에만 계시던… 저 멀리 멀리 계시던 성모님이 지금은 바로 내 곁에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어머니의 사진 두 볼에 뾰뽀를 하며 아침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난 뒤로 저는 몇 갑절 더한 행복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알렐루야! 우리의 머리 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는 주님! 메주고리예를 통해 성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말이 앞서고 행동은 깜박등처럼 깜빡~ 깜빡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매달리며 다듬어 갑니다. 성모 마리아님, 나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밝은 길을 열어 주셨고, 돈 버느냐고 주일 미사 빠지며, 집에서 쉬던 날들을 보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우신 주님이신지.. 지혜의 주님! 친미와 영광의 주님!

언제부턴가 우리가게에 매일 첫번째 오는 손님의 수입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몫으로 떼어놓고 있는데 참 마음이 편합니다. 첫 손님은 안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매달 이 큰 돈을 떼어 놓아도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는 것을 자주 체험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많이 있었을 때 보다 지금 마음이 더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복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조심스런 제 성격에 맞춰 놀라 도망가지 않도록, 성령 세미나를 통해 성령대회로 이끌어 주시고 하느님과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저 같은 부자가 또 있을까요? 성모님의 그 크신 사랑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둘....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셉 신부님 말씀대로 양쪽 손을 율리아노와 잡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2010년 7월 메주고리예 청소년 훼스티발에 아들 둘을 보내고 난 뒤에 제가 체험한 것은 예수님은 절대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덤까지 더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봉사자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듬뿍 듬뿍 담겨지고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M**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대우, 강선주, 강신일, 강찬구, 구순의, 곽준식, 권금옥, 김건일, 김경숙, 김골롬바, 김금성,  
 김마데라, 김마르다, 김세록, 김소영, 김수옥, 김숙자, 김아그네스, 김영서, 김영임, 김영혜,  
 김원희, 김효안, 김재국, 김정자, 김주희, 김찬석, 김창윤, 김학훈, 김혜숙, 김효안, 노마리아,  
 류숙자, 문홍식, 민금이, 민병돈, 민혜례나, 박경희, 박난정, 박명진, 박병칠, 박영실, 박정자,  
 박젬마, 박카타리나, 박혜선, 박혜영, 백낙현, 백안셀모, 변례지나, 서남숙, 서승모, 서애자,  
 서주을, 성문선, 성순희, 차수미, 신기수, 신순덕, 신승희, 신현철, 심문자, 심세실리아, 안광숙,  
 안제인, 안희자, 양유스티나, 엄선미, 엄토마스, 여애경, 여주희, 오글로리아, 우동춘, 우준혁,  
 원명희, 유보영, 유선애, 유승순, 유제영, 유진호, 유희정, 윤경이, 윤향호, 윤안젤라, 윤정숙  
 윤로사리오, 율리안나, 이갑희, 이건순, 이경성, 이계숙, 이동우, 이미리아, 이문자, 이민경,  
 이명진, 이미애, 이복희, 이봉수, 이성운, 이순세, 이순자, 이연기, 이영분, 이영희, 이옥범, 이윤영, 이은경, 이은정,  
 이은희, 이의정, 이인석, 이정순, 이정우, 이정옥, 이정자, 이정희, 이종천, 이진민, 이한식, 이현주, 이형택, 임미숙,  
 장성치, 장효숙, 전득기, 전명자, 전정숙, 전진숙, 전현숙, 정금희, 정윤도, 정찬례, 정홍영, 조동진, 조진, 주남표,  
 주숙은, 지니김, 진스텔라, 진은필, 진인숙, 천정순, 최동숙, 최명숙, 최순복, 최정신, 최종권, 최혜선, 표상순, 한경렬,  
 홍용선, 황계자, 황문월, 신시네티 기도회원, 익명

Gregory Lee, Tak U. Lee, Yoon Lee, Eileen K. Cho, U. L. Leach, Ryou, Paul, Kiw Trettel, Matthew Park, Henry L. Ji, Oksun Karosas, Richard J Yu, Chong Ae Lake, K. Larcenaire, HelenJ. Eugenio, Chung Sook Paeng, Song Geltrada, Cho, Mong Shin, Cyuthia Ziggman, Noh Joa Chin, Kim, Joo D, Seung Ryu, Susanna George, Park C.H, Kap Chung, Lee Mary K., Kyung Yun, Chong Suk Dardy, Jae Kang, Kwang J. Han, James G. Taphorn, Myong S. Spence, Sun Hui Lamb, Anna H. Cho, Lisa Rigoni,

-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십시일반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발행되어 미주 전 지역과 12개의 해외에 무료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 가족과 친지들의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주세요.  
성모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월금	- \$3,112.53
일반 후원금	\$ 9,650.00
특별후원금 : (달력후원금포함)	\$ 11,740.00
후원금 합계 :	\$ 21,390.00
지출	
56호 소식지, 반송봉투, 통신비, 교통비,	
발송비, 사무실 비품 및 운영비	\$20,585.46
이월금 (지난호 부족금)	\$3,112.53
총지출액	\$23,697.99
현재 부족금	- \$ 2,307.99



### 하느님께서 그대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기도안에서 그대가 하느님과 친밀함을 느낄때 진실을 생각하십시오.  
 할수만 있다면 하느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럴수 없다면 침묵하십시오.  
 그저 하느님께서 그대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초조해 하지마십시오.  
 그대는 아주 작습니다. 하느님의 손안에 있는 보잘것 없는 도구일뿐인 인간을 두려워 하면서  
 정녕 하느님의 정의는 두려워 하지 않으므로 ...  
 주님은 때로 그대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도록 하십니다.  
 그무게가 참을수 없을 정도라 하여도 그대는 그것을 지고 갈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큰힘을 주실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려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섬겨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상의 성비오 신부님 어록중에서..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Return Address](#)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2011년 성지순례 안내**



## 이스라엘, 메주고리예 및 드브로브니 성지순례

일시 : 2011년 5월 18 ~ 29일 (11박 12일)

## 성모님 발현 30주년 기념 순례

이태리, 메주고리예 및 드브로브니 순례

일시 : 2011년 6월 18 ~ 28일(10박11일)

## 국제 여름 청년대회

파리, 루르드, 메주고리예

지도신부: 안이시도로 (멤피스 성당 주임)

일시 : 2011년 7월 28일부터 8월 10일(13박14일)

문의처 :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mailto:qpmm.org@gmail.com) / 홈페이지 [www.qpmm.org](http://www.qpmm.org)

PRSR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